

고구마

김승일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대항해시대와 고구마



고구마의 원산지는 멕시코, 콜롬비아 등 날씨가 더운 북중미 지역이다. 주로 고구마는 마야, 아스텍(중앙 멕시코의 원주민, Aztec), 잉카제국 사람들이 주로 재배했으며 품종도 개량되었다. 그러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가 4번째 탐험 때 유럽으로 가지고 와 전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고구마의 세계화도 결국은 15세기 대항해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마가 아시아로 전해진 것은 유럽으로부터가 아니라 대항해시대의 일환으로 멕시코로부터 직접 전해졌다.

마젤란은 1521년 스페인 왕의 원조 하에 세계 일주에 나서게 되었고 아프리카 남부의 희망봉을 지나 인도양을 거쳐 자바 지역을 통과한 후 필리핀의 세부 섬에 도착하였다. 이때 이곳의 원주민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영토를 침략하려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대항하여 싸웠다. 이 과정에서 마젤란은 그 맞은편에 있던 섬의 수장 라프라프에게 패하여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스페인은 이후 언젠가 기회만 있으면 이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버르고 있었고 스페인의 레가스피(Legazpi)가 1571년에 타갈로그족의 수도 마이닐라(마닐라)를 공격하여 탈취하게 되었다. 이후 스페인은 이곳을 스페인령이었던 멕시코와 중국을 연결하는 교역의 근거지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고구마가 멕시코로부터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직접 전해지게 되었다. 요즘에도 필리핀에서는 고구마를 ‘카모테(Camote)’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주 극빈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도 ‘카모테로써 살아간다’라는 말을 이용해 사용하곤 한다.

■ 중국과 류큐 왕국의 교역의 선물

마닐라 시에는 중국인 거류지가 생겨날 정도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 때 중국 복건(福建)성의 진진룡이라는 상인이 고구마를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의 최대 섬 루손에서 복건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중국에 전해지게 됐다고 한다. 전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이 없으나 1580년경인 명나라 만력(萬曆)년간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1594년이라는 설도 있다. 이렇게 중국에 전해진 고구마를 중국에서는 감저(甘藷) 혹은 홍저(紅藷) 등으로 표기하였다.

복건지방에서는 맛이 좋고 재배가 편리한 고구마가 순식간에 확대 재배되었다. 이후 고구마는 17세기 후반 경, 중국에 간 류큐(琉球) 사신이 고구마의 맛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 조금 얻어다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류큐에 전래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류큐 왕국은 작은 섬나라에 불과했지만 그 위치는 유럽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오는 해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 아시아의 국제적 교역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인들의 내왕이 빈번했으며 동시에 이들 각국과 친교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류큐 왕국은 여러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 친교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었다. 즉 이런 일환으로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고구마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류큐 왕국의 노쿠니(野國)라는 총관(總管)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고구마 재배법을 배웠으며 그가 1605년에 귀국하면서 이를 류큐에 재배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이렇게 들여온 고구마는 류큐 땅이 화산지역이었지만 기후가 맞아 잘 자랐고 생육이 빨라 곧바로 류큐 전역에 확산되게 되었다. 류큐 사람들은 고구마가 중국으로부터 전해졌다 하여 고구마를 ‘도이모(唐藷)’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도(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 말은 곧 ‘중국의 감자’라는 뜻이다.

■ 임진왜란의 최대 피해자 류큐 왕국

임진왜란을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류큐 왕에게 조선 정벌을 하는데 필요한 병력과 병참을 지원하도록 명령했으나 류큐 왕국은 끝내 거절하였다. 그 결과 임진왜란에 참패한 도쿠가와(德川) 막부는 국내가 안정되자마자 궤뺨죄를 들어 1609년에 류큐를 공격하였다. 당시 일본 본토군은 군선 100여 척에 3천여 병력을 태우고 공격하여 류큐 왕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류큐는 이미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는 형식이 되어 이후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 하에서 일본 측과 유대관계를 가져야만 했던 류큐 왕은 일본 남쪽 규슈(九州)지방의 권력자에게 고구마를 한 바구니 선물하기에 이르렀다. 고구마를 처음 접한 규슈사람들은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고구마라는 묘한 식물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7년이 지난 1715년경에는 규슈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규슈에서 혼슈(本州)로 전해진 시기는 1731년 기근에 효과가 있다는 진언을 들은

이토 마사아키라는 사람이 고구마 종자 100근을 수입하여 재배하게 됨으로써 전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고구마 대관(大官)' 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데서 연유된 것이다.

이러한 고구마의 효능이 결국 1735년(享保 20)에 에도막부(江戸幕府)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당시 막부의 건축재정을 위해 개혁을 추진 중이던 장군(將軍) 요시무네(吉宗)는 즉시 고구마를 재배토록 명령했다. 그리하여 고구마는 급속히 관동지역 일대로 보급되었으며 이후 계속되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구마의 전국적인 확대 재배는 가속화 되었다.

처음에는 고구마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민들도 그 맛과 대량 수확에 놀란 데다 막부의 홍보정책에 의해 고구마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고구마를 좋아하게 되었다.

■ 쓰시마의 효자가 조선의 효자로



식량문제로 항상 고민을 해오던 쓰시마(對馬島)에 고구마가 전해지게 된 것은 1715년이였다. 쓰시마에서는 고구마를 '효자감자(孝子麻)' 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만큼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던 쓰시마 사람들에게 고구마는 자식들보다 더 훌륭한 효도를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고구마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던 조선으로 고구마가 알려지게 된 것은 마지막 통신사로서 1763년(영조 39년) 겨울에 일본으로 떠났던 정사(正使) 조엄(趙顯)에 의해서였다.¹⁾ 통신사는 에도시대(江戸時代) 때에 총 12회 파견되었는데 고구마의 조선 전래도 이러한 교류의 한 선물이였다.

통신사 정사로 임명된 조엄이 일행을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한 것은 1763년(영조 39년) 8월 3일이였다. 마지막 통신사절단 단장인 조엄은 처음부터 정사로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먼저 정사로 지명된 서명옹(徐命膺)이 마침 일이 생겨 못 가게 되는 바람에 뒤늦게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 『해사일기(海槎日記)』와 『종저보(種蒔譜)』의 기구한 운명

8월 초에 서울을 떠난 일행이 쓰시마 해안에 도착한 것은 10월 7일 초저녁이였다. 이처럼 늦게 도착하게 된 것은 날씨 때문이었는데 쓰시마의 중심 도시인 이즈하라(嚴原)항구에 도착한 것은 그보다 며칠 후인 11일이였다. 바로 이때 일행은 고구마를 처음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구마를 처음 먹게 된 사절단 일행은 맛이 좋은데다가 재배가 쉽고 척박한 땅에서도

1) 1763년(영조39년) 8월 3일에 서울을 출발한 통신사 일행은 일본 정부 측에서 일본 본토로 못 오게 하는 바람에 서로 실랑이를 하느라 6개월 가량을 쓰시마에 머물게 된다.

잘 된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하게 되면 구황을 이겨내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일행은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고구마에 대해 세심한 관찰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조엄은 자신이 쓴 『해사일기』에 기록하였다. 이후 그는 씨 고구마를 얻어 연락선 편으로 부산으로 보내게 되었다.

당시 부산 첨사(僉使)인 이응혁(李應赫)은 조엄의 죽마고우인 이시보(李時甫)의 아들이었기에 곧바로 이 씨 고구마를 동래에서 재배하도록 하였다. 고구마에 대해 기록한 조엄의 『해사일기』를 보면 그의 예견력이 돋보인다.

“동래에 심은 것이 모두 살아서 잘 퍼지게 되면 문익점(文益漸)이 들여온 목화와 함께 우리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제주도와 그 밖의 섬에 심었으면 좋겠다. 제주도의 토속은 대마도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니 이것이 잘 되면 제주도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해마다 애걸하여 전라도 창고의 식량을 배로 운반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조엄은 정당한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기로 유명한 인물로 그의 별명은 ‘조고집’으로 불릴 정도였다. 결국 정조 때의 홍국영에게 미움을 받아 김해로 귀양을 가서 59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조엄이 대신 가게 되었던 원래의 통신사 서명응의 손자 서유구는 친할 아버지의 친구인 조엄의 뜻을 전하기 위해 1834년(순조 34년) 『종저보(種藟譜)』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이는 조엄이 세상을 떠난 지 57년 후의 일로 이 책에서 서유구는 고구마의 재배 법과 이앙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고구마의 보급을 위해 쓰시마에서 씨 고구마를 다시 들여 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삼남지방에서만 재배되는 줄 알았던 고구마는 급속도로 전라도와 경상도로 보급되게 되었고 곧이어 경기도까지 북상하게 되어 19세기에 들어서부터는 조선의 기근을 해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